

□2.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문 17』 귀하의 가정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변수명』 A17(원 문항), RA17(2점 recode)

▣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5.3%(‘매우’ 10.5% + ‘다소’ 74.8%)로 높게 나타남.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7%(‘매우’ 1.0% + ‘다소’ 13.7%)에 불과함. 지난 2016년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경향이 유지됨.

- 성별로 남성(85.1%)과 여성(85.6%)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2]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변수명	값	응답 항목	2017년 비율(%)	2016년 비율(%)	Gap (%p)
A17 (4점)	1	매우 만족한다	10.5	11.9	- 1.4
	2	다소 만족한다	74.8	71.1	3.7
	3	다소 불만족 한다	13.7	15.7	- 2.0
	4	매우 불만족 한다	1.0	1.3	- 0.3
RA17 (2점 re.)	5(1+2)	만족	85.3	83.0	2.3
	6(3+4)	불만족	14.7	17.0	- 2.3

구 분		사례수	매우 만족한다	다소 만족한다	다소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만족 (1+2)	불만족 (3+4)
전 체		(2000)	10.5	74.8	13.7	1.0	85.3	14.7
성	남성	(992)	12.3	72.7	14.0	0.9	85.1	14.9
	여성	(1008)	8.7	76.9	13.4	1.0	85.6	14.4

구 분		사례수	매우 만족한다	다소 만족한다	다소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만족 (1+2)	불만족 (3+4)
전 체		(2000)	10.5	74.8	13.7	1.0	85.3	14.7
연령	18~29세	(375)	8.7	77.5	13.0	0.8	86.2	13.8
	30대	(347)	17.8	68.6	12.5	1.1	86.4	13.6
	40대	(406)	12.0	71.3	15.6	1.1	83.3	16.7
	50대	(394)	8.4	75.9	14.8	0.9	84.4	15.6
	60세 이상	(478)	6.9	79.3	12.6	1.1	86.3	13.7
지역	서울	(392)	7.5	82.2	9.9	0.3	89.8	10.2
	인천/경기	(597)	14.1	73.5	11.4	0.9	87.6	12.4
	대전/세종/충청	(210)	13.7	72.7	13.4	0.2	86.4	13.6
	광주/전라	(201)	1.3	76.6	22.1	0.0	77.9	22.1
	대구/경북	(201)	13.6	74.6	10.6	1.1	88.3	11.7
	부산/울산/경남	(313)	5.1	69.4	22.2	3.3	74.5	25.5
	강원/제주	(86)	24.6	71.5	3.9	0.0	96.1	3.9
학력	중졸이하	(258)	4.8	78.5	14.6	2.0	83.4	16.6
	고졸	(685)	7.8	74.7	17.0	0.5	82.5	17.5
	대재이상	(1057)	13.6	74.0	11.3	1.1	87.6	12.4
직업	농/임/어업	(71)	5.4	75.8	18.3	0.5	81.2	18.8
	자영업	(281)	12.9	76.2	10.3	0.6	89.1	10.9
	생산/서비스직	(460)	7.9	75.2	16.4	0.5	83.1	16.9
	관리/전문/사무직	(495)	15.5	71.6	11.8	1.0	87.2	12.8
	가정주부	(393)	7.7	75.2	15.8	1.3	82.9	17.1
	학생	(185)	8.2	78.7	11.5	1.6	86.9	13.1
	무직/기타	(114)	9.5	75.5	12.8	2.2	85.0	15.0
혼인	미혼	(449)	8.5	75.1	15.8	0.6	83.5	16.5
	기혼	(1413)	11.8	75.2	11.8	1.2	87.0	13.0
	이혼/사별	(137)	3.3	70.0	26.4	0.2	73.3	26.7
가구원 수	1인	(119)	6.7	72.8	20.2	0.3	79.5	20.5
	2인	(475)	9.6	73.7	15.7	1.0	83.3	16.7
	3인	(574)	10.2	75.7	13.2	0.9	85.9	14.1
	4인이하	(832)	11.7	75.2	12.0	1.2	86.9	13.1
종교	불교	(358)	10.4	72.1	15.3	2.1	82.6	17.4
	기독교	(321)	12.6	77.4	9.4	0.7	89.9	10.1
	천주교	(142)	13.5	70.9	14.0	1.6	84.4	15.6
	기타	(7)	0.0	37.0	63.0	0.0	37.0	63.0
	종교없음	(1172)	9.6	75.6	14.1	0.7	85.2	14.8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7.2	73.4	18.0	1.3	80.7	19.3
	301~500만원	(918)	10.2	76.1	12.8	0.9	86.3	13.7
	501만원이상	(527)	14.4	74.0	10.7	0.9	88.4	11.6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29.1	64.8	5.8	0.3	93.9	6.1
	중 인식층	(1094)	11.1	75.9	12.1	0.9	87.0	13.0
	하 인식층	(779)	6.5	75.0	17.2	1.3	81.5	18.5

□3. 결혼에 대한 인식

『 문 18 』 귀하는 결혼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수명 』 A18(원 문항), RA18(2점 recode)

▣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응답이 82.8%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17.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한편 ‘해야 한다’는 응답 중 ‘반드시 해야한다’는 17.2%로 나타나, 지난 2016년 대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8%p 감소함.

- 연령에 관계 없이 ‘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93.7%)에서 특히 높고, 20대 이하(67.4%)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표. 2-3-3] 결혼에 대한 인식

변수명	값	응답 항목	2017년 비율(%)	2016년 비율(%)	Gap (%p)
A18 (4점)	1	반드시 해야 한다	17.2	22.0	- 4.8
	2	하는 것이 좋다	65.6	64.8	0.8
	3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6.7	12.6	4.1
	4	하지 말아야한다	0.6	0.7	- 0.1
RA18 (2점 re.)	5(1+2)	해야 한다	82.8	86.8	- 4.0
	6(3+4)	하지 말아야한다	17.2	13.2	4.0

구 분		사례수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1+2)	하지 말아야 한다 (3+4)
전 체		(2000)	17.2	65.6	16.7	0.6	82.8	17.2
연령	18~29세	(375)	5.9	61.5	32.1	0.4	67.4	32.6
	30대	(347)	11.8	73.1	13.6	1.4	84.9	15.1
	40대	(406)	13.3	67.6	18.6	0.5	80.8	19.2
	50대	(394)	17.2	67.0	15.3	0.5	84.2	15.8
	60세 이상	(478)	33.3	60.4	6.2	0.1	93.7	6.3

구 분		사례수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1+2)	하지 말아야 한다 (3+4)
전 체		(2000)	17.2	65.6	16.7	0.6	82.8	17.2
성	남성	(992)	19.4	67.0	13.3	0.3	86.4	13.6
	여성	(1008)	15.0	64.2	20.0	0.8	79.2	20.8
지역	서울	(392)	12.5	73.5	13.9	0.2	85.9	14.1
	인천/경기	(597)	15.7	64.2	18.9	1.2	79.9	20.1
	대전/세종/충청	(210)	26.7	61.2	11.7	0.3	88.0	12.0
	광주/전라	(201)	14.0	69.6	16.3	0.0	83.7	16.3
	대구/경북	(201)	18.5	67.9	13.3	0.2	86.5	13.5
	부산/울산/경남	(313)	19.8	57.7	21.9	0.7	77.4	22.6
	강원/제주	(86)	20.9	63.3	15.9	0.0	84.1	15.9
학력	중졸이하	(258)	37.3	52.3	10.3	0.1	89.6	10.4
	고졸	(685)	16.9	68.7	13.2	1.2	85.6	14.4
	대재이상	(1057)	12.5	66.8	20.5	0.2	79.2	20.8
직업	농/임/어업	(71)	34.8	56.3	8.9	0.0	91.1	8.9
	자영업	(281)	19.3	66.2	14.5	0.0	85.5	14.5
	생산/서비스직	(460)	16.4	62.6	20.2	0.8	79.0	21.0
	관리/전문/사무직	(495)	12.6	70.2	16.1	1.1	82.8	17.2
	가정주부	(393)	18.9	67.8	12.9	0.4	86.8	13.2
	학생	(185)	2.9	68.3	28.4	0.4	71.2	28.8
	무직/기타	(114)	41.2	49.7	9.1	0.0	90.9	9.1
혼인	미혼	(449)	5.0	63.1	31.5	0.4	68.1	31.9
	기혼	(1413)	20.4	67.0	12.0	0.6	87.4	12.6
	이혼/사별	(137)	24.4	58.5	15.9	1.2	82.9	17.1
가구원 수	1인	(119)	25.2	59.1	14.9	0.7	84.3	15.7
	2인	(475)	25.6	61.0	13.4	0.0	86.6	13.4
	3인	(574)	14.9	68.4	15.6	1.2	83.3	16.7
	4인이하	(832)	12.8	67.2	19.5	0.4	80.0	20.0
종교	불교	(358)	27.1	60.7	12.0	0.2	87.8	12.2
	기독교	(321)	19.6	64.4	15.3	0.8	84.0	16.0
	천주교	(142)	20.5	59.7	17.7	2.2	80.2	19.8
	기타	(7)	6.2	93.8	0.0	0.0	100.0	0.0
	종교없음	(1172)	13.2	67.9	18.5	0.4	81.1	18.9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25.9	60.7	13.1	0.3	86.6	13.4
	301~500만원	(918)	13.6	66.9	18.8	0.7	80.5	19.5
	501만원이상	(527)	14.3	68.4	16.7	0.6	82.7	17.3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24.3	57.2	17.7	0.8	81.5	18.5
	중 인식층	(1094)	16.4	67.0	16.1	0.6	83.4	16.6
	하 인식층	(779)	17.2	64.9	17.4	0.5	82.1	17.9

□4. 이혼에 대한 인식

『 문 19 』 귀하는 이혼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 수 명 』 A19(원 문항), RA19(2점 recode)

▣ 이혼에 대해 인식을 질문한 결과, ‘이혼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60.7%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39.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지난 2016년 대비 ‘이혼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11.3%p 상승함.

-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20대 이하 80.6% > 30대 65.6% > 40대 61.1% > 50대 57.3% > 60세 이상 44.1%)

[표. 2-3-4] 이혼에 대한 인식

변수명	값	응답 항목	2017년 비율(%)	2016년 비율(%)	Gap (%p)
A19 (4점)	1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8.0	12.8	- 4.8
	2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	31.3	37.8	- 6.5
	3	경우에 따라 이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4.8	40.0	4.8
	4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15.9	9.4	6.5
RA19 (2점 re.)	5(1+2)	이혼 해서는 안 된다	39.3	50.6	- 11.3
	6(3+4)	이혼 할 수도 있다	60.7	49.4	11.3

구 분		사례수	어떤 이유라도 이혼 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혼 해서는 안 된다 (1+2)	이혼할 수도 있다 (3+4)
전 체		(2000)	8.0	31.3	44.8	15.9	39.3	60.7
연령	18~29세	(375)	2.7	16.7	55.3	25.3	19.4	80.6
	30대	(347)	7.0	27.4	47.8	17.7	34.4	65.6
	40대	(406)	5.4	33.4	48.1	13.0	38.9	61.1
	50대	(394)	8.2	34.6	42.6	14.7	42.7	57.3
	60세 이상	(478)	14.9	41.0	33.5	10.5	55.9	44.1

구 분		사례수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 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 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이혼 할 수도 있고 하지않을 수도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혼 해서 는 안된다 (1+2)	이혼 할 수도 있다 (3+4)
전 체		(2000)	8.0	31.3	44.8	15.9	39.3	60.7
성	남성	(992)	8.4	31.0	45.3	15.4	39.4	60.6
	여성	(1008)	7.6	31.6	44.4	16.4	39.2	60.8
지역	서울	(392)	8.1	24.1	53.1	14.7	32.2	67.8
	인천/경기	(597)	8.9	30.3	42.3	18.4	39.3	60.7
	대전/세종/충청	(210)	8.5	28.4	54.5	8.6	36.8	63.2
	광주/전라	(201)	8.3	49.7	33.0	9.0	58.0	42.0
	대구/경북	(201)	5.3	32.6	45.5	16.6	37.9	62.1
	부산/울산/경남	(313)	6.1	30.8	44.0	19.0	37.0	63.0
	강원/제주	(86)	12.0	33.6	29.9	24.5	45.6	54.4
학력	중졸이하	(258)	16.2	47.5	27.2	9.1	63.7	36.3
	고졸	(685)	8.5	34.0	41.5	16.0	42.5	57.5
	대재이상	(1057)	5.7	25.6	51.3	17.5	31.2	68.8
직업	농/임/어업	(71)	18.7	41.1	28.4	11.8	59.8	40.2
	자영업	(281)	8.6	34.7	42.8	13.9	43.3	56.7
	생산/서비스직	(460)	9.0	31.3	44.2	15.5	40.3	59.7
	관리/전문/사무직	(495)	4.6	26.2	50.2	19.0	30.8	69.2
	가정주부	(393)	8.0	35.4	43.5	13.0	43.4	56.6
	학생	(185)	1.1	18.6	54.3	26.0	19.8	80.2
	무직/기타	(114)	21.9	44.9	28.7	4.6	66.7	33.3
혼인	미혼	(449)	2.6	17.4	55.7	24.3	20.0	80.0
	기혼	(1413)	9.3	34.9	42.5	13.3	44.2	55.8
	이혼/사별	(137)	12.4	39.4	33.3	14.9	51.8	48.2
가구원 수	1인	(119)	10.4	36.7	35.2	17.7	47.1	52.9
	2인	(475)	10.4	38.1	39.0	12.5	48.5	51.5
	3인	(574)	8.6	27.3	47.0	17.1	35.9	64.1
	4인이하	(832)	5.9	29.4	48.0	16.7	35.2	64.8
종교	불교	(358)	12.6	35.5	40.8	11.0	48.2	51.8
	기독교	(321)	11.2	30.5	42.9	15.4	41.7	58.3
	천주교	(142)	13.9	27.4	45.1	13.6	41.3	58.7
	기타	(7)	0.0	66.2	33.8	0.0	66.2	33.8
	종교없음	(1172)	5.0	30.5	46.6	17.9	35.5	64.5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10.9	35.8	40.9	12.4	46.7	53.3
	301~500만원	(918)	7.4	30.5	44.5	17.6	37.9	62.1
	501만원이상	(527)	6.1	27.8	49.5	16.5	33.9	66.1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8.6	37.3	32.2	22.0	45.9	54.1
	중 인식층	(1094)	6.8	30.4	45.5	17.2	37.2	62.8
	하 인식층	(779)	9.6	31.5	45.9	13.0	41.1	58.9

□5. 한국 사회 가치관

5.1. 일과 육아의 역할

『 문 20 』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가 보시기에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변 수 명 』 A201(원 문항), RA201(3점 recode), MA201(-, + 환산 점수)

▣ 일과 육아의 역할과 관련한 주장 중,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가 47.1%로,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는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32.5%)보다 다소 높음.

- 연령에 관계 없이 ‘남편과 아내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가 높은 가운데, 20대 이하(56.2%), 30대(52.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2-3-5] 한국 사회 가치관 - 일과 육아의 역할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01 (7점)	1	남편과 아내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 (A, -)	7.2
	2	2점	20.1
	3	3점	19.8
	4	보통이다	20.4
	5	5점	16.8
	6	6점	11.0
	7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는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 (B, +)	4.7
RA201 (3점) recode)	8(1~3)	A 동의	47.1
	9(4)	보통	20.4
	10(5~7)	B 동의	32.5
MA201 (mean)	-	‘-’ ‘+’ 환산 점수(점)	- 9.6점

구 분		사례수	남편과 아내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 (1~3, -)	보통이다 (4)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는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47.1	20.4	32.5	(- 9.6)
성	남성	(992)	47.9	20.7	31.4	(- 9.5)
	여성	(1008)	46.3	20.1	33.5	(- 9.7)
연령	18~29세	(375)	56.2	15.5	28.2	(- 21.2)
	30대	(347)	52.9	19.3	27.7	(- 14.7)
	40대	(406)	42.0	22.9	35.2	(- 5.3)
	50대	(394)	45.5	22.5	32.0	(- 8.8)
	60세 이상	(478)	41.4	21.3	37.2	(- 1.2)
지역	서울	(392)	50.6	17.9	31.5	(- 13.9)
	인천/경기	(597)	48.6	20.8	30.6	(- 12.1)
	대전/세종/충청	(210)	48.9	32.6	18.5	(- 15.4)
	광주/전라	(201)	39.7	21.6	38.6	(2.1)
	대구/경북	(201)	58.5	22.2	19.3	(- 24.9)
	부산/울산/경남	(313)	34.6	13.9	51.5	(10.0)
	강원/제주	(86)	52.5	16.5	31.0	(- 21.6)
학력	중졸이하	(258)	38.0	21.3	40.7	(3.0)
	고졸	(685)	42.7	22.6	34.7	(- 5.3)
	대재이상	(1057)	52.2	18.8	29.0	(- 15.5)
직업	농/임/어업	(71)	45.2	27.6	27.2	(- 12.5)
	자영업	(281)	45.6	26.7	27.7	(- 8.6)
	생산/서비스직	(460)	42.4	22.2	35.4	(- 5.7)
	관리/전문/사무직	(495)	52.7	16.4	30.9	(- 12.8)
	가정주부	(393)	42.8	20.1	37.1	(- 4.9)
	학생	(185)	53.7	16.9	29.4	(- 19.4)
	무직/기타	(114)	50.8	17.7	31.5	(- 12.5)
혼인	미혼	(449)	57.8	16.0	26.2	(- 23.1)
	기혼	(1413)	43.9	21.8	34.3	(- 5.9)
	이혼/사별	(137)	45.0	20.5	34.5	(- 3.8)
가구원 수	1인	(119)	59.7	15.5	24.7	(- 19.5)
	2인	(475)	46.7	21.6	31.7	(- 9.3)
	3인	(574)	48.3	22.2	29.5	(- 9.9)
	4인이하	(832)	44.7	19.3	36.0	(- 8.1)
종교	불교	(358)	43.3	17.7	39.0	(- 2.2)
	기독교	(321)	51.5	17.7	30.8	(- 13.3)
	천주교	(142)	41.7	17.5	40.8	(2.2)
	기타	(7)	27.5	21.5	51.0	(14.7)
	종교없음	(1172)	47.8	22.4	29.8	(- 12.4)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48.5	22.3	29.2	(- 12.6)
	301~500만원	(918)	46.3	20.2	33.5	(- 8.8)
	501만원이상	(527)	47.0	18.9	34.1	(- 7.9)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35.9	13.4	50.7	(8.4)
	중 인식층	(1094)	51.2	20.4	28.4	(- 14.0)
	하 인식층	(779)	43.2	21.7	35.1	(- 6.4)

5.2. 아이 양육 주체

『문 20』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가 보시기에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변수명』 A202(원 문항), RA202(3점 recode), MA202(-, + 환산 점수)

▣ 아이 양육 주체와 관련한 주장 중,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부모 이외 다른 사람이 아이를 길러도 무방하다’가 36.1%, ‘부모가 직접 아이를 반드시 길러야 한다’가 38.1%로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섬.

- 혼인 여부별로 미혼은 ‘부모 이외 다른 사람이 아이를 길러도 무방하다’(39.0%)가, 기혼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반드시 길러야 한다’(40.2%)가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3-6] 한국 사회 가치관 - 아이 양육 주체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02 (7점)	1	부모 이외 다른 사람이 아이를 길러도 무방하다 (A, -)	3.9
	2	2점	12.0
	3	3점	20.1
	4	보통이다	25.8
	5	5점	18.8
	6	6점	13.1
	7	부모가 직접 아이를 반드시 길러야 한다 (B, +)	6.2
RA202 (3점 recode)	8(1~3)	A 동의	36.1
	9(4)	보통	25.8
	10(5~7)	B 동의	38.1
MA202 (mean)	-	‘-’ ‘+’ 환산 점수(점)	2.5점

구 분		사례수	부모 이외 다른 사람이 아이를 길러도 무방하다 (1~3, -)	보통이다 (4)	부모가 직접 아이를 반드시 길러야 한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36.1	25.8	38.1	(2.5)
성	남성	(992)	35.3	26.6	38.1	(3.6)
	여성	(1008)	36.9	25.1	38.0	(1.5)
연령	18~29세	(375)	38.6	29.6	31.9	(-3.1)
	30대	(347)	40.5	24.9	34.6	(-0.2)
	40대	(406)	34.4	26.0	39.6	(4.3)
	50대	(394)	34.7	22.9	42.4	(4.9)
	60세 이상	(478)	33.6	25.9	40.5	(5.5)
지역	서울	(392)	37.3	27.2	35.5	(1.4)
	인천/경기	(597)	37.4	24.2	38.5	(2.1)
	대전/세종/충청	(210)	41.3	34.3	24.5	(-4.3)
	광주/전라	(201)	30.3	27.6	42.1	(5.6)
	대구/경북	(201)	43.3	19.1	37.6	(-2.5)
	부산/울산/경남	(313)	27.2	24.7	48.1	(11.3)
학력	강원/제주	(86)	38.5	26.6	34.9	(-0.7)
	중졸이하	(258)	36.8	25.9	37.3	(2.9)
	고졸	(685)	32.8	25.7	41.5	(6.5)
	대재이상	(1057)	38.0	25.9	36.0	(-0.2)
직업	농/임/어업	(71)	42.4	17.6	40.0	(0.2)
	자영업	(281)	34.9	25.8	39.2	(4.1)
	생산/서비스직	(460)	37.2	22.5	40.3	(1.9)
	관리/전문/사무직	(495)	36.3	25.1	38.5	(3.6)
	가정주부	(393)	34.5	25.7	39.8	(4.8)
	학생	(185)	37.5	37.8	24.7	(-6.9)
	무직/기타	(114)	32.7	28.9	38.4	(5.5)
혼인	미혼	(449)	39.0	30.1	30.9	(-3.8)
	기혼	(1413)	35.5	24.4	40.2	(4.3)
	이혼/사별	(137)	33.1	27.3	39.6	(5.2)
가구원 수	1인	(119)	35.7	26.9	37.4	(8.1)
	2인	(475)	36.8	24.4	38.8	(3.2)
	3인	(574)	40.7	24.8	34.5	(-3.0)
	4인이하	(832)	32.6	27.2	40.2	(5.2)
종교	불교	(358)	32.7	18.4	49.0	(10.5)
	기독교	(321)	36.6	27.2	36.2	(1.4)
	천주교	(142)	38.4	17.0	44.7	(8.7)
	기타	(7)	37.6	5.2	57.2	(29.6)
	종교없음	(1172)	36.7	29.0	34.3	(-0.5)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35.9	25.5	38.5	(4.0)
	301~500만원	(918)	34.2	28.4	37.4	(2.8)
	501만원이상	(527)	39.4	21.8	38.7	(0.5)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30.8	24.0	45.3	(12.3)
	중 인식층	(1094)	36.4	27.1	36.5	(0.7)
	하 인식층	(779)	36.5	24.4	39.0	(3.5)

5.3. 부모와 아이 동침

『 문 20 』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가 보시기에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변 수 명 』 A203(원 문항), RA203(3점 recode), MA203(-, + 환산 점수)

▣ 부모와 아이 동침과 관련한 주장 중,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부모와 아이가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가 38.9%, ‘부모와 아이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가 34.7%로 비슷하게 나타남.

- 혼인 여부별로 미혼은 ‘부모와 아이가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44.3%)로 높은 반면, 기혼은 ‘부모와 아이가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36.5%)와 ‘부모와 아이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36.9%)가 비슷함.

[표. 2-3-7] 한국 사회 가치관 - 부모와 아이 동침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03 (7점)	1	부모와 아이가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 (A, -)	4.2
	2	2점	12.8
	3	3점	21.9
	4	보통이다	26.4
	5	5점	18.5
	6	6점	11.5
	7	부모와 아이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 (B, +)	4.7
RA203 (3점) recode)	8(1~3)	A 동의	38.9
	9(4)	보통	26.4
	10(5~7)	B 동의	34.7
MA203 (mean)	-	‘-’ ‘+’ 환산 점수(점)	- 1.5점

구 분		사례수	부모와 아이가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 (1~3, -)	보통이다 (4)	부모와 아이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38.9	26.4	34.7	(- 1.5)
성	남성	(992)	39.1	27.8	33.1	(- 2.8)
	여성	(1008)	38.7	25.0	36.3	(- 0.2)
연령	18~29세	(375)	47.5	26.4	26.1	(- 13.0)
	30대	(347)	33.0	29.0	38.0	(5.3)
	40대	(406)	38.5	25.8	35.7	(0.5)
	50대	(394)	41.6	22.8	35.6	(- 2.9)
	60세 이상	(478)	34.5	28.1	37.4	(2.0)
지역	서울	(392)	39.0	27.4	33.6	(- 2.8)
	인천/경기	(597)	36.8	26.3	36.9	(- 1.2)
	대전/세종/충청	(210)	57.1	27.5	15.4	(- 17.3)
	광주/전라	(201)	43.1	21.4	35.5	(0.3)
	대구/경북	(201)	35.7	29.0	35.3	(1.3)
	부산/울산/경남	(313)	30.0	27.1	42.9	(7.8)
	강원/제주	(86)	38.4	23.2	38.4	(- 3.9)
학력	중졸이하	(258)	31.4	25.2	43.4	(6.6)
	고졸	(685)	39.4	23.2	37.4	(0.2)
	대재이상	(1057)	40.4	28.8	30.8	(- 4.6)
직업	농/임/어업	(71)	47.2	17.1	35.7	(- 2.7)
	자영업	(281)	39.7	24.7	35.6	(- 0.2)
	생산/서비스직	(460)	41.1	24.0	34.9	(- 3.0)
	관리/전문/사무직	(495)	38.3	28.4	33.3	(- 0.9)
	가정주부	(393)	34.5	26.8	38.6	(2.4)
	학생	(185)	41.2	30.8	28.0	(- 10.4)
	무직/기타	(114)	36.7	28.8	34.5	(0.3)
혼인	미혼	(449)	44.3	27.5	28.1	(- 9.7)
	기혼	(1413)	36.5	26.6	36.9	(1.7)
	이혼/사별	(137)	46.2	20.3	33.5	(- 7.2)
가구원 수	1인	(119)	46.4	20.1	33.6	(- 5.2)
	2인	(475)	37.9	28.1	34.0	(- 1.4)
	3인	(574)	37.7	27.2	35.1	(- 0.3)
	4인이하	(832)	39.2	25.8	35.0	(- 1.8)
종교	불교	(358)	36.3	23.9	39.7	(2.8)
	기독교	(321)	37.6	30.1	32.3	(- 3.8)
	천주교	(142)	41.1	22.2	36.8	(1.4)
	기타	(7)	78.3	16.5	5.2	(- 48.7)
	종교없음	(1172)	39.5	26.7	33.7	(- 2.3)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41.5	25.9	32.6	(- 3.2)
	301~500만원	(918)	36.3	28.1	35.7	(1.4)
	501만원이상	(527)	40.7	24.1	35.2	(- 4.8)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38.2	19.9	41.9	(- 2.7)
	중 인식층	(1094)	40.7	26.6	32.7	(- 3.1)
	하 인식층	(779)	36.5	27.2	36.3	(0.9)

5.4.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

『문 20』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가 보시기에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변수명』 A204(원 문항), RA204(3점 recode), MA204(-, + 환산 점수)

☐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과 관련한 주장 중,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여성의 가사활동이 경제활동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가 43.3%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사활동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26.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에 관계 없이 ‘여성의 가사활동이 경제활동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가 높은 가운데, 20대 이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사활동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32.8%)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3-8] 한국 사회 가치관 -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04 (7점)	1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사활동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A, -)	1.5
	2	2점	7.1
	3	3점	17.7
	4	보통이다	30.4
	5	5점	22.4
	6	6점	15.6
	7	여성의 가사활동이 경제활동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B, +)	5.3
RA204 (3점 recode)	8(1~3)	A 동의	26.2
	9(4)	보통	30.4
	10(5~7)	B 동의	43.3
MA204 (mean)	-	‘-’ ‘+’ 환산 점수(점)	11.1점

구 분		사례수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사활동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1~3, -)	보통이다 (4)	여성의 가사활동이 경제활동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26.2	30.4	43.3	(11.1)
성	남성	(992)	26.3	30.9	42.8	(11.4)
	여성	(1008)	26.2	30.0	43.8	(10.9)
연령	18~29세	(375)	32.8	29.8	37.3	(4.9)
	30대	(347)	22.8	37.2	39.9	(12.0)
	40대	(406)	21.6	33.5	44.9	(13.4)
	50대	(394)	26.9	27.2	45.9	(11.7)
	60세 이상	(478)	26.9	26.1	47.0	(13.0)
지역	서울	(392)	24.0	33.7	42.3	(9.0)
	인천/경기	(597)	26.0	30.6	43.5	(13.9)
	대전/세종/충청	(210)	30.5	41.1	28.4	(1.0)
	광주/전라	(201)	40.5	25.2	34.3	(1.5)
	대구/경북	(201)	25.2	29.6	45.1	(11.3)
	부산/울산/경남	(313)	15.5	25.6	58.9	(22.9)
	강원/제주	(86)	36.2	20.4	43.5	(5.4)
학력	중졸이하	(258)	29.7	27.9	42.4	(10.1)
	고졸	(685)	25.8	25.9	48.3	(13.4)
	대재이상	(1057)	25.7	34.0	40.3	(9.9)
직업	농/임/어업	(71)	45.5	20.9	33.6	(-0.6)
	자영업	(281)	27.1	30.7	42.2	(8.7)
	생산/서비스직	(460)	23.8	29.6	46.6	(13.0)
	관리/전문/사무직	(495)	22.9	36.4	40.7	(12.8)
	가정주부	(393)	24.3	29.1	46.6	(13.7)
	학생	(185)	32.3	26.9	40.8	(6.3)
	무직/기타	(114)	33.0	23.9	43.1	(8.1)
혼인	미혼	(449)	31.0	31.7	37.3	(5.8)
	기혼	(1413)	24.7	30.3	44.9	(12.5)
	이혼/사별	(137)	26.3	27.2	46.5	(14.3)
가구원 수	1인	(119)	26.7	24.8	48.4	(13.2)
	2인	(475)	28.6	30.7	40.7	(7.4)
	3인	(574)	27.5	28.1	44.4	(12.6)
	4인이하	(832)	23.9	32.7	43.4	(11.9)
종교	불교	(358)	22.2	27.8	49.9	(16.6)
	기독교	(321)	26.4	30.8	42.8	(9.4)
	천주교	(142)	25.9	22.2	51.9	(16.8)
	기타	(7)	15.2	33.8	51.0	(15.8)
	종교없음	(1172)	27.5	32.1	40.4	(9.2)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30.2	30.2	39.6	(7.2)
	301~500만원	(918)	25.7	31.0	43.3	(10.7)
	501만원이상	(527)	23.0	29.7	47.3	(16.0)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20.7	26.7	52.6	(25.7)
	중 인식층	(1094)	28.1	30.0	41.9	(8.6)
	하 인식층	(779)	24.5	31.7	43.8	(12.3)

5.5. 직장 내 성별 직무 능력

『문 20』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가 보시기에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변수명』 A205(원 문항), RA205(3점 recode), MA205(-, + 환산 점수)

▣ 직장 내 성별 직무 능력과 관련한 주장 중,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 능력이 우월하다’가 45.8%로,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무 능력의 차이가 없다’ 29.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관리/전문/사무직(49.7%), 생산/서비스직(48.4%), 자영업(48.1%) 등 경제 활동층에서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 능력이 우월하다’가 높은 반면, 학생은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무 능력의 차이가 없다’(40.7%)가 약간 높게 나타남.

[표. 2-3-9] 한국 사회 가치관 - 직장 내 성별 직무 능력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05 (7점)	1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무 능력의 차이가 없다 (A, -)	2.4
	2	2점	7.7
	3	3점	19.2
	4	보통이다	24.9
	5	5점	24.2
	6	6점	16.2
	7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 능력이 우월하다 (B, +)	5.4
RA205 (3점) recode)	8(1~3)	A 동의	29.3
	9(4)	보통	24.9
	10(5~7)	B 동의	45.8
MA205 (mean)	-	‘-’ ‘+’ 환산 점수(점)	10.3점

구 분		사례수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무 능력의 차이가 없다 (1~3, -)	보통이다 (4)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 능력이 우월하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29.3	24.9	45.8	(10.3)
성	남성	(992)	25.3	26.7	48.0	(13.9)
	여성	(1008)	33.2	23.2	43.7	(6.7)
연령	18~29세	(375)	36.7	22.4	40.9	(4.2)
	30대	(347)	25.0	28.6	46.4	(12.7)
	40대	(406)	28.0	24.8	47.1	(10.7)
	50대	(394)	26.2	27.5	46.3	(11.6)
	60세 이상	(478)	30.1	22.3	47.6	(11.9)
지역	서울	(392)	28.1	27.8	44.0	(8.0)
	인천/경기	(597)	29.7	22.7	47.6	(13.1)
	대전/세종/충청	(210)	26.9	21.7	51.4	(14.9)
	광주/전라	(201)	45.9	23.2	30.9	(-4.2)
	대구/경북	(201)	29.0	30.6	40.3	(7.8)
	부산/울산/경남	(313)	19.7	24.0	56.3	(18.9)
	강원/제주	(86)	33.9	29.3	36.8	(-1.5)
학력	중졸이하	(258)	30.2	23.1	46.7	(11.7)
	고졸	(685)	26.5	24.0	49.4	(13.8)
	대재이상	(1057)	30.8	26.0	43.2	(7.7)
직업	농/임/어업	(71)	41.3	26.0	32.7	(-4.3)
	자영업	(281)	26.2	25.7	48.1	(12.5)
	생산/서비스직	(460)	25.0	26.6	48.4	(12.6)
	관리/전문/사무직	(495)	27.4	22.9	49.7	(14.0)
	가정주부	(393)	32.0	23.3	44.8	(9.1)
	학생	(185)	40.7	25.4	33.9	(-2.5)
	무직/기타	(114)	26.8	29.6	43.7	(13.8)
혼인	미혼	(449)	34.7	23.8	41.5	(5.5)
	기혼	(1413)	27.6	25.6	46.8	(11.4)
	이혼/사별	(137)	28.6	21.6	49.8	(14.2)
가구원 수	1인	(119)	36.2	17.8	46.0	(8.4)
	2인	(475)	32.7	23.6	43.7	(6.8)
	3인	(574)	29.3	25.7	45.0	(11.2)
	4인이하	(832)	26.3	26.2	47.5	(11.9)
종교	불교	(358)	22.3	28.6	49.1	(15.7)
	기독교	(321)	34.6	23.1	42.3	(5.0)
	천주교	(142)	25.3	16.3	58.4	(20.2)
	기타	(7)	44.0	0.0	56.0	(-1.7)
	종교없음	(1172)	30.4	25.5	44.1	(9.0)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33.1	25.7	41.2	(5.0)
	301~500만원	(918)	29.0	24.8	46.2	(10.9)
	501만원이상	(527)	25.6	24.5	49.9	(14.9)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23.4	19.3	57.4	(26.5)
	중 인식층	(1094)	31.9	25.5	42.6	(7.2)
	하 인식층	(779)	26.5	25.1	48.4	(12.0)

5.6. 직장 동료 성별 선호

『 문 20 』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가 보시기에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변수명 』 A206(원 문항), RA206(3점 recode), MA206(-, + 환산 점수)

▣ 직장 동료 성별 선호와 관련한 주장 중,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한국인들은 남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가 46.0%로, ‘한국인들은 성별에 따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다’ 24.2%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남.

- 직업에 관계 없이 ‘한국인들은 남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관리/전문/사무직(50.1%)에서 특히 높음.

[표. 2-3-10] 한국 사회 가치관 - 직장 동료 성별 선호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06 (7점)	1	한국인들은 성별에 따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다 (A, -)	1.3
	2	2점	6.8
	3	3점	16.2
	4	보통이다	29.8
	5	5점	27.0
	6	6점	14.1
	7	한국인들은 남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B, +)	4.9
RA206 (3점) recode)	8(1~3)	A 동의	24.2
	9(4)	보통	29.8
	10(5~7)	B 동의	46.0
MA206 (mean)	-	‘-’ ‘+’ 환산 점수(점)	12.1점

구 분		사례수	한국인들은 성별에 따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다 (1~3, -)	보통이다 (4)	한국인들은 남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24.2	29.8	46.0	(12.1)
성	남성	(992)	23.0	31.1	45.9	(12.9)
	여성	(1008)	25.5	28.5	46.0	(11.3)
연령	18~29세	(375)	29.3	25.6	45.2	(9.5)
	30대	(347)	22.0	31.5	46.5	(13.4)
	40대	(406)	18.4	31.0	50.7	(17.5)
	50대	(394)	26.8	31.2	42.0	(9.2)
	60세 이상	(478)	24.8	29.7	45.5	(11.0)
지역	서울	(392)	29.8	27.6	42.6	(4.0)
	인천/경기	(597)	20.3	28.8	50.9	(18.8)
	대전/세종/충청	(210)	18.4	32.2	49.4	(15.9)
	광주/전라	(201)	41.4	22.1	36.5	(0.4)
	대구/경북	(201)	25.0	41.4	33.6	(5.7)
	부산/울산/경남	(313)	15.9	30.9	53.2	(19.6)
	강원/제주	(86)	28.8	27.3	43.9	(8.3)
학력	중졸이하	(258)	28.3	29.5	42.2	(8.7)
	고졸	(685)	23.6	30.8	45.6	(12.9)
	대재이상	(1057)	23.7	29.2	47.1	(12.4)
직업	농/임/어업	(71)	28.3	37.9	33.8	(2.1)
	자영업	(281)	21.5	35.0	43.4	(11.7)
	생산/서비스직	(460)	25.7	30.4	43.9	(10.2)
	관리/전문/사무직	(495)	20.9	29.1	50.1	(16.3)
	가정주부	(393)	22.4	27.8	49.8	(15.0)
	학생	(185)	28.6	26.7	44.8	(8.4)
	무직/기타	(114)	36.4	24.2	39.4	(4.9)
혼인	미혼	(449)	27.1	29.1	43.8	(9.4)
	기혼	(1413)	23.3	30.4	46.2	(12.8)
	이혼/사별	(137)	24.0	25.3	50.6	(13.9)
가구원 수	1인	(119)	14.7	28.5	56.8	(20.2)
	2인	(475)	28.8	30.7	40.5	(8.0)
	3인	(574)	21.9	29.9	48.2	(14.7)
	4인이하	(832)	24.6	29.4	46.0	(11.5)
종교	불교	(358)	23.6	28.5	47.9	(12.8)
	기독교	(321)	23.0	32.7	44.3	(10.7)
	천주교	(142)	20.6	23.4	56.0	(24.2)
	기타	(7)	6.2	25.3	68.4	(41.8)
	종교없음	(1172)	25.3	30.2	44.5	(10.6)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26.4	29.8	43.8	(9.9)
	301~500만원	(918)	23.8	28.7	47.5	(13.0)
	501만원이상	(527)	22.7	31.7	45.6	(12.8)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24.6	25.0	50.4	(16.2)
	중 인식층	(1094)	24.6	31.2	44.2	(10.5)
	하 인식층	(779)	23.7	28.5	47.8	(13.6)

5.7.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직무 수행 영향

『 문 20 』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가 보시기에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변수명 』 A207(원 문항), RA207(3점 recode), MA207(-, + 환산 점수)

☑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직무 수행 영향과 관련한 주장 중,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출산으로 인한 1년 내외의 업무 공백은 직무에 악영향을 준다’가 53.4%로 과반을 차지함. 반면 ‘출산으로 인한 1년 내외의 업무 공백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1.4%로 나타남.

- 계층에 관계 없이 ‘출산으로 인한 1년 내외의 업무 공백은 직무에 악영향을 준다’가 높은 가운데, 501만원 이상 소득층(61.7%), 생활 수준 인식 상층(63.9%) 등 부유층에서 특히 높음.

[표. 2-3-11] 한국 사회 가치관 -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직무 수행 영향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07 (7점)	1	출산으로 인한 1년 내외의 업무 공백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	1.3
	2	2점	4.1
	3	3점	16.1
	4	보통이다	25.2
	5	5점	28.7
	6	6점	18.0
	7	출산으로 인한 1년 내외의 업무 공백은 직무에 악영향을 준다 (B, +)	6.7
RA207 (3점 recode)	8(1~3)	A 동의	21.4
	9(4)	보통	25.2
	10(5~7)	B 동의	53.4
MA207 (mean)	-	‘-’ ‘+’ 환산 점수(점)	18.9점

구 분		사례수	출산으로 인한 1년 내외의 업무 공백은 주지 않는다 (1~3, -)	보통이다 (4)	출산으로 인한 1년 내외의 업무 공백은 주지 않는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21.4	25.2	53.4	(18.9)
성	남성	(992)	22.2	22.6	55.2	(19.4)
	여성	(1008)	20.6	27.7	51.7	(18.5)
연령	18~29세	(375)	25.0	30.2	44.9	(13.5)
	30대	(347)	19.3	22.3	58.4	(23.6)
	40대	(406)	21.6	23.1	55.3	(20.2)
	50대	(394)	19.5	26.6	53.9	(19.7)
	60세 이상	(478)	21.6	23.9	54.4	(18.1)
지역	서울	(392)	27.6	25.1	47.3	(10.1)
	인천/경기	(597)	18.4	24.7	56.9	(25.1)
	대전/세종/충청	(210)	20.1	27.8	52.1	(17.2)
	광주/전라	(201)	35.0	26.5	38.5	(7.2)
	대구/경북	(201)	16.6	23.5	59.9	(25.8)
	부산/울산/경남	(313)	12.5	25.1	62.4	(25.4)
	강원/제주	(86)	29.5	23.7	46.9	(7.8)
학력	중졸이하	(258)	18.7	29.5	51.7	(19.9)
	고졸	(685)	20.1	24.4	55.5	(20.6)
	대재이상	(1057)	23.0	24.6	52.4	(17.6)
직업	농/임/어업	(71)	27.4	20.7	51.9	(14.0)
	자영업	(281)	16.0	22.8	61.2	(22.9)
	생산/서비스직	(460)	19.7	24.8	55.4	(19.0)
	관리/전문/사무직	(495)	24.2	21.9	54.0	(20.4)
	가정주부	(393)	20.0	31.1	48.9	(18.0)
	학생	(185)	22.3	31.9	45.8	(14.4)
	무직/기타	(114)	29.7	18.3	52.0	(16.1)
혼인	미혼	(449)	24.5	31.2	44.3	(12.3)
	기혼	(1413)	20.4	23.0	56.6	(21.3)
	이혼/사별	(137)	22.1	27.9	50.0	(16.4)
가구원 수	1인	(119)	22.9	23.2	53.9	(15.7)
	2인	(475)	21.9	28.0	50.1	(15.4)
	3인	(574)	23.5	22.0	54.6	(21.1)
	4인이하	(832)	19.6	26.1	54.4	(19.9)
종교	불교	(358)	16.7	26.5	56.9	(23.1)
	기독교	(321)	22.0	25.9	52.1	(16.0)
	천주교	(142)	13.5	21.4	65.1	(32.3)
	기타	(7)	22.6	19.6	57.8	(11.7)
	종교없음	(1172)	23.7	25.1	51.3	(16.9)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22.0	27.2	50.8	(17.5)
	301~500만원	(918)	23.1	26.7	50.2	(15.2)
	501만원이상	(527)	17.9	20.5	61.7	(27.0)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19.0	17.1	63.9	(36.7)
	중 인식층	(1094)	23.7	24.7	51.6	(15.9)
	하 인식층	(779)	18.7	27.1	54.2	(20.2)

5.8. 결혼 후 여성의 지위 평가 기준

『문 20』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가 보시기에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변수명』 A208(원 문항), RA208(3점 recode), MA208(-, + 환산 점수)

☑ 결혼 후 여성의 지위 평가 기준과 관련한 주장 중, 한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결혼 후 여성의 지위는 남편의 지위 및 능력으로 평가된다’가 46.5%로, ‘결혼 후 여성의 지위는 여성 개인의 지위 및 능력으로 평가된다’ 23.6%에 비해 2배 가량 높음.

-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결혼 후 여성의 지위는 남편의 지위 및 능력으로 평가된다’가 높은 가운데, 기혼(49.1%)이 미혼(3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12] 한국 사회 가치관 - 결혼 후 여성의 지위 평가 기준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08 (7점)	1	결혼 후 여성의 지위는 여성 개인의 지위 및 능력으로 평가된다 (A, -)	1.2
	2	2점	5.5
	3	3점	16.9
	4	보통이다	29.9
	5	5점	27.2
	6	6점	13.9
	7	결혼 후 여성의 지위는 남편의 지위 및 능력으로 평가된다 (B, +)	5.4
RA208 (3점 recode)	8(1~3)	A 동의	23.6
	9(4)	보통	29.9
	10(5~7)	B 동의	46.5
MA208 (mean)	-	‘-’ ‘+’ 환산 점수(점)	13.2점

구 분		사례수	여성 개인의 지위 및 능력으로 평가된다 (1~3, -)	보통이다 (4)	남편의 지위 및 능력으로 평가된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23.6	29.9	46.5	(13.2)
성	남성	(992)	23.5	30.9	45.6	(13.1)
	여성	(1008)	23.8	28.9	47.4	(13.3)
연령	18~29세	(375)	28.1	33.6	38.3	(7.7)
	30대	(347)	21.5	32.1	46.4	(14.1)
	40대	(406)	21.4	30.1	48.5	(16.6)
	50대	(394)	22.4	29.7	47.9	(13.1)
	60세 이상	(478)	24.5	25.3	50.2	(14.0)
지역	서울	(392)	29.0	27.2	43.8	(6.9)
	인천/경기	(597)	20.8	30.6	48.5	(16.0)
	대전/세종/충청	(210)	17.5	35.3	47.3	(17.0)
	광주/전라	(201)	28.4	42.3	29.3	(6.0)
	대구/경북	(201)	25.6	29.8	44.6	(11.0)
	부산/울산/경남	(313)	19.7	22.7	57.6	(20.4)
	강원/제주	(86)	31.6	20.8	47.6	(9.0)
학력	중졸이하	(258)	19.8	28.5	51.7	(18.0)
	고졸	(685)	22.4	28.5	49.0	(14.5)
	대재이상	(1057)	25.3	31.1	43.6	(11.1)
직업	농/임/어업	(71)	24.0	35.1	40.9	(11.4)
	자영업	(281)	21.6	25.0	53.4	(17.1)
	생산/서비스직	(460)	22.4	29.3	48.3	(14.9)
	관리/전문/사무직	(495)	26.0	30.5	43.5	(11.8)
	가정주부	(393)	22.0	28.6	49.5	(14.3)
	학생	(185)	25.8	36.4	37.8	(6.2)
	무직/기타	(114)	24.9	32.2	42.9	(11.2)
혼인	미혼	(449)	27.4	35.4	37.2	(7.1)
	기혼	(1413)	22.6	28.3	49.1	(14.8)
	이혼/사별	(137)	21.4	28.6	50.0	(16.8)
가구원 수	1인	(119)	25.3	31.1	43.6	(12.9)
	2인	(475)	24.1	31.9	44.0	(10.8)
	3인	(574)	24.2	28.1	47.7	(13.2)
	4인이하	(832)	22.7	29.8	47.5	(14.6)
종교	불교	(358)	20.6	27.7	51.7	(16.7)
	기독교	(321)	22.8	24.3	52.9	(15.4)
	천주교	(142)	22.6	26.3	51.1	(21.0)
	기타	(7)	22.6	0.0	77.4	(21.0)
	종교없음	(1172)	24.9	32.7	42.4	(10.5)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22.8	31.8	45.4	(13.3)
	301~500만원	(918)	22.9	31.5	45.6	(11.9)
	501만원이상	(527)	25.8	25.0	49.2	(15.4)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18.4	30.8	50.8	(25.4)
	중 인식층	(1094)	24.5	31.7	43.7	(11.1)
	하 인식층	(779)	23.2	27.1	49.7	(14.1)

□6. 본인 가치관

6.1. 일과 육아의 역할

『 문 21 』 그러면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변 수 명 』 A211(원 문항), RA211(3점 recode), MA211(-, + 환산 점수)

▣ 일과 육아의 역할과 관련한 주장 중, 본인의 생각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나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가 54.1%로 과반을 차지함. 한편 ‘나는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23.8%로 나타남.

- 연령에 관계 없이 ‘나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가 높은 가운데, 20대 이하(65.4%), 30대(60.6%)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2-3-13] 본인 개인 가치관 - 일과 육아의 역할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11 (7점)	1	나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A, -)	8.2
	2	2점	21.9
	3	3점	24.0
	4	보통이다	22.1
	5	5점	13.4
	6	6점	8.8
	7	나는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는 것을 선호한다 (B, +)	1.6
RA211	8(1~3)	A 동의	54.1
(3점)	9(4)	보통	22.1
recode)	10(5~7)	B 동의	23.8
MA211 (mean)	-	‘-’ ‘+’ 환산 점수(점)	- 18.8점

구 분		사례수	나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1~3, -)	보통이다 (4)	나는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는 것을 선호한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54.1	22.1	23.8	(- 18.8)
성	남성	(992)	53.9	22.1	24.0	(- 18.4)
	여성	(1008)	54.3	22.1	23.6	(- 19.3)
연령	18~29세	(375)	65.4	20.3	14.3	(- 34.6)
	30대	(347)	60.6	16.4	23.0	(- 22.7)
	40대	(406)	50.2	25.9	24.0	(- 15.9)
	50대	(394)	50.4	21.8	27.8	(- 14.2)
	60세 이상	(478)	46.9	24.7	28.4	(- 10.1)
지역	서울	(392)	55.4	15.0	29.6	(- 14.7)
	인천/경기	(597)	54.8	22.6	22.7	(- 20.6)
	대전/세종/충청	(210)	55.5	32.5	11.9	(- 22.2)
	광주/전라	(201)	51.4	33.2	15.5	(- 20.2)
	대구/경북	(201)	47.2	20.5	32.3	(- 14.9)
	부산/울산/경남	(313)	56.7	19.1	24.2	(- 19.9)
	강원/제주	(86)	53.7	14.4	31.9	(- 19.6)
학력	중졸이하	(258)	42.1	27.7	30.2	(- 7.2)
	고졸	(685)	52.6	20.9	26.5	(- 15.4)
	대재이상	(1057)	58.0	21.5	20.5	(- 23.9)
직업	농/임/어업	(71)	48.8	27.2	24.0	(- 14.2)
	자영업	(281)	48.8	25.6	25.7	(- 12.1)
	생산/서비스직	(460)	53.3	20.8	25.9	(- 17.7)
	관리/전문/사무직	(495)	59.8	19.6	20.6	(- 25.0)
	가정주부	(393)	49.5	24.0	26.5	(- 14.0)
	학생	(185)	64.9	21.3	13.9	(- 34.0)
	무직/기타	(114)	47.4	21.4	31.1	(- 8.3)
혼인	미혼	(449)	64.9	20.0	15.1	(- 32.7)
	기혼	(1413)	51.2	22.8	26.0	(- 15.2)
	이혼/사별	(137)	48.7	21.9	29.4	(- 10.6)
가구원 수	1인	(119)	64.3	16.0	19.7	(- 26.1)
	2인	(475)	51.1	19.1	29.7	(- 13.5)
	3인	(574)	57.7	23.6	18.7	(- 23.7)
	4인이하	(832)	51.9	23.6	24.5	(- 17.5)
종교	불교	(358)	43.9	25.1	31.0	(- 8.3)
	기독교	(321)	52.8	20.9	26.4	(- 17.0)
	천주교	(142)	60.6	12.8	26.6	(- 25.4)
	기타	(7)	67.7	5.2	27.2	(- 18.3)
	종교없음	(1172)	56.7	22.7	20.5	(- 21.8)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53.2	21.5	25.3	(- 17.0)
	301~500만원	(918)	50.5	24.5	25.0	(- 15.2)
	501만원이상	(527)	61.3	18.5	20.2	(- 27.1)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55.7	14.8	29.5	(- 19.0)
	중 인식층	(1094)	55.4	23.8	20.8	(- 21.7)
	하 인식층	(779)	52.0	20.9	27.0	(- 14.9)

6.2. 아이 양육 주체

『문 21』 그러면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변수명』 A212(원 문항), RA212(3점 recode), MA212(-, + 환산 점수)

▣ 아이 양육 주체와 관련한 주장 중, 본인의 생각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아에 관한 도움을 받고 싶다’가 45.1%로, ‘나는 나 또는 배우자가 직접 아이를 길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31.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54.6%)는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아에 관한 도움을 받고 싶다’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14] 본인 개인 가치관 - 아이 양육 주체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12 (7점)	1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아에 관한 도움을 받고 싶다 (A, -)	4.6
	2	2점	18.2
	3	3점	22.3
	4	보통이다	23.2
	5	5점	17.9
	6	6점	9.6
	7	나는 나 또는 배우자가 직접 아이를 길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B, +)	4.2
RA212 (3점) recode)	8(1~3)	A 동의	45.1
	9(4)	보통	23.2
	10(5~7)	B 동의	31.7
MA212 (mean)	-	‘-’ ‘+’ 환산 점수(점)	- 7.6점

구 분		사례수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아에 관한 도움을 받고 싶다 (1~3, -)	보통이다 (4)	나는 나 또는 배우자가 직접 아이를 길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45.1	23.2	31.7	(- 7.6)
성	남성	(992)	42.9	24.7	32.4	(- 5.1)
	여성	(1008)	47.3	21.6	31.0	(- 10.0)
연령	18~29세	(375)	47.3	26.3	26.4	(- 14.4)
	30대	(347)	54.6	20.0	25.4	(- 15.9)
	40대	(406)	47.1	21.3	31.7	(- 7.8)
	50대	(394)	40.6	23.8	35.6	(- 3.0)
	60세 이상	(478)	38.7	24.0	37.3	(0.1)
지역	서울	(392)	44.7	21.5	33.8	(- 6.6)
	인천/경기	(597)	44.5	23.5	32.0	(- 7.7)
	대전/세종/충청	(210)	49.5	29.2	21.3	(- 12.6)
	광주/전라	(201)	42.0	32.0	26.0	(- 8.2)
	대구/경북	(201)	37.5	16.8	45.7	(4.0)
	부산/울산/경남	(313)	52.6	19.0	28.4	(- 14.9)
	강원/제주	(86)	39.0	23.0	38.0	(1.3)
학력	중졸이하	(258)	33.3	24.9	41.8	(5.2)
	고졸	(685)	41.5	23.0	35.5	(- 2.5)
	대재이상	(1057)	50.4	22.9	26.8	(- 14.0)
직업	농/임/어업	(71)	47.7	15.4	36.8	(- 3.9)
	자영업	(281)	43.2	26.7	30.1	(- 5.9)
	생산/서비스직	(460)	43.5	22.3	34.2	(- 6.0)
	관리/전문/사무직	(495)	49.3	20.7	30.0	(- 10.6)
	가정주부	(393)	44.3	21.1	34.6	(- 5.5)
	학생	(185)	47.4	29.4	23.1	(- 17.4)
	무직/기타	(114)	36.1	30.2	33.7	(1.3)
혼인	미혼	(449)	50.7	25.7	23.6	(- 16.5)
	기혼	(1413)	44.0	22.4	33.6	(- 5.8)
	이혼/사별	(137)	38.6	22.2	39.2	(2.8)
가구원 수	1인	(119)	46.3	20.0	33.6	(- 8.2)
	2인	(475)	42.0	23.5	34.6	(- 2.4)
	3인	(574)	48.8	22.4	28.9	(- 12.4)
	4인이하	(832)	44.3	24.0	31.8	(- 7.2)
종교	불교	(358)	39.8	19.9	40.4	(4.1)
	기독교	(321)	48.5	20.5	31.0	(- 9.0)
	천주교	(142)	56.6	12.2	31.2	(- 20.0)
	기타	(7)	39.3	5.2	55.5	(9.0)
	종교없음	(1172)	44.5	26.3	29.2	(- 9.4)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40.7	25.9	33.4	(- 2.3)
	301~500만원	(918)	44.3	22.8	32.9	(- 6.2)
	501만원이상	(527)	51.2	20.9	27.9	(- 15.6)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42.0	21.8	36.2	(- 4.4)
	중 인식층	(1094)	48.3	24.1	27.6	(- 11.2)
	하 인식층	(779)	41.2	22.0	36.8	(- 3.0)

6.3. 부모와 아이 동침

『 문 21 』 그러면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변수명 』 A213(원 문항), RA213(3점 recode), MA213(-, + 환산 점수)

▣ 부모와 아이 동침과 관련한 주장 중, 본인의 생각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나는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가 43.8%로, ‘나는 아이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 29.8%보다 다소 높음.

-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나는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가 높은 가운데, 미혼(49.3%)이 기혼(4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3-15] 본인 개인 가치관 - 부모와 아이 동침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13 (7점)	1	나는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 (A, -)	5.0
	2	2점	15.5
	3	3점	23.3
	4	보통이다	26.4
	5	5점	17.4
	6	6점	10.0
	7	나는 아이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 (B, +)	2.5
RA213	8(1~3)	A 동의	43.8
(3점)	9(4)	보통	26.4
recode)	10(5~7)	B 동의	29.8
MA213 (mean)	-	‘-’ ‘+’ 환산 점수(점)	- 8.2점

구 분		사례수	나는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 (1~3, -)	보통이다 (4)	나는 아이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좋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43.8	26.4	29.8	(- 8.2)
성	남성	(992)	46.1	29.3	24.5	(- 12.0)
	여성	(1008)	41.5	23.5	35.0	(- 4.5)
연령	18~29세	(375)	51.0	27.8	21.2	(- 17.0)
	30대	(347)	42.0	26.8	31.2	(- 6.0)
	40대	(406)	43.2	25.2	31.6	(- 7.4)
	50대	(394)	47.7	23.4	28.9	(- 10.9)
	60세 이상	(478)	36.9	28.3	34.8	(- 1.5)
지역	서울	(392)	45.4	28.0	26.6	(- 9.7)
	인천/경기	(597)	42.6	23.3	34.2	(- 6.3)
	대전/세종/충청	(210)	58.2	28.1	13.8	(- 21.1)
	광주/전라	(201)	43.8	26.3	29.9	(- 6.3)
	대구/경북	(201)	36.4	22.4	41.1	(1.0)
	부산/울산/경남	(313)	42.2	32.1	25.7	(- 11.3)
	강원/제주	(86)	33.5	24.8	41.7	(1.9)
학력	중졸이하	(258)	36.2	25.6	38.2	(0.0)
	고졸	(685)	45.2	24.8	30.0	(- 8.2)
	대재이상	(1057)	44.8	27.5	27.7	(- 10.2)
직업	농/임/어업	(71)	39.7	25.5	34.8	(0.9)
	자영업	(281)	47.3	27.3	25.4	(- 13.3)
	생산/서비스직	(460)	42.1	26.3	31.6	(- 5.9)
	관리/전문/사무직	(495)	48.7	26.2	25.1	(- 13.7)
	가정주부	(393)	38.2	23.6	38.2	(- 0.8)
	학생	(185)	44.3	30.1	25.6	(- 12.9)
	무직/기타	(114)	42.1	28.7	29.1	(- 5.0)
혼인	미혼	(449)	49.3	28.0	22.6	(- 15.5)
	기혼	(1413)	42.5	26.2	31.3	(- 6.5)
	이혼/사별	(137)	39.7	22.3	38.0	(- 2.2)
가구원 수	1인	(119)	44.0	27.9	28.2	(- 10.4)
	2인	(475)	39.2	27.8	32.9	(- 2.9)
	3인	(574)	44.7	25.8	29.5	(- 8.9)
	4인이하	(832)	45.8	25.7	28.5	(- 10.4)
종교	불교	(358)	36.5	26.8	36.6	(- 1.1)
	기독교	(321)	47.2	24.1	28.7	(- 11.5)
	천주교	(142)	53.9	20.1	26.1	(- 20.8)
	기타	(7)	74.5	9.0	16.5	(- 24.1)
	종교없음	(1172)	43.7	27.7	28.6	(- 7.9)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41.8	28.2	30.0	(- 6.1)
	301~500만원	(918)	43.6	26.0	30.4	(- 6.2)
	501만원이상	(527)	46.2	25.1	28.7	(- 13.9)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51.0	17.3	31.7	(- 17.4)
	중 인식층	(1094)	45.6	24.2	30.1	(- 9.0)
	하 인식층	(779)	40.1	30.8	29.1	(- 5.6)

6.4.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

『 문 21 』 그러면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변수명 』 A214(원 문항), RA214(3점 recode), MA214(-, + 환산 점수)

☐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과 관련한 주장 중, 본인의 생각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나는 여성이 가사활동을 경제활동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36.9%, ‘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가사활동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33.6%로, 두 주장이 비슷하게 나타남.

- 성별로 남성은 ‘나는 여성이 가사활동을 경제활동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9.0%)가 약간 높은 반면, 여성은 ‘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가사활동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5.5%)와 ‘나는 여성이 가사활동을 경제활동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4.9%)이 팽팽히 맞섬.

[표. 2-3-16] 본인 개인 가치관 -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14 (7점)	1	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가사활동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	1.7
	2	2점	9.4
	3	3점	22.5
	4	보통이다	29.4
	5	5점	23.1
	6	6점	11.2
	7	나는 여성이 가사활동을 경제활동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 +)	2.7
RA214 (3점 recode)	8(1~3)	A 동의	33.6
	9(4)	보통	29.4
	10(5~7)	B 동의	36.9
MA214 (mean)	-	‘-’ ‘+’ 환산 점수(점)	2.3점

구 분		사례수	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가사활동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	보통이다 (4)	나는 여성이 가사활동을 경제활동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33.6	29.4	36.9	(2.3)
성	남성	(992)	31.7	29.2	39.0	(4.4)
	여성	(1008)	35.5	29.6	34.9	(0.3)
연령	18~29세	(375)	41.3	30.5	28.2	(-4.6)
	30대	(347)	34.5	34.4	31.1	(-1.2)
	40대	(406)	32.9	29.8	37.3	(2.0)
	50대	(394)	31.8	29.1	39.2	(5.0)
	60세 이상	(478)	29.1	25.0	45.9	(8.4)
지역	서울	(392)	35.8	28.4	35.8	(0.6)
	인천/경기	(597)	31.6	28.4	40.0	(6.3)
	대전/세종/충청	(210)	32.6	44.1	23.3	(-3.0)
	광주/전라	(201)	41.4	19.7	38.9	(-4.1)
	대구/경북	(201)	23.0	32.7	44.2	(11.1)
	부산/울산/경남	(313)	38.3	26.6	35.1	(-2.8)
	강원/제주	(86)	30.0	30.3	39.7	(9.0)
학력	중졸이하	(258)	30.1	22.5	47.4	(10.7)
	고졸	(685)	29.9	30.4	39.7	(5.3)
	대재이상	(1057)	36.9	30.5	32.6	(-1.7)
직업	농/임/어업	(71)	26.1	34.2	39.7	(8.1)
	자영업	(281)	29.9	30.7	39.4	(6.0)
	생산/서비스직	(460)	33.1	29.7	37.1	(1.6)
	관리/전문/사무직	(495)	36.5	30.5	33.0	(-1.1)
	가정주부	(393)	31.0	29.2	39.8	(4.5)
	학생	(185)	42.2	24.1	33.7	(-1.1)
	무직/기타	(114)	32.1	27.0	40.9	(5.7)
혼인	미혼	(449)	39.7	31.6	28.7	(-3.8)
	기혼	(1413)	32.1	29.5	38.4	(3.3)
	이혼/사별	(137)	29.8	21.4	48.8	(11.9)
가구원 수	1인	(119)	39.2	18.5	42.3	(1.7)
	2인	(475)	31.8	30.9	37.2	(2.4)
	3인	(574)	30.1	34.5	35.4	(3.0)
	4인이하	(832)	36.3	26.6	37.1	(1.9)
종교	불교	(358)	27.5	28.5	44.0	(11.4)
	기독교	(321)	34.4	25.0	40.6	(5.0)
	천주교	(142)	38.8	28.9	32.3	(-6.4)
	기타	(7)	22.6	17.5	59.9	(15.9)
	종교없음	(1172)	34.7	31.0	34.2	(-0.2)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30.1	30.4	39.5	(5.3)
	301~500만원	(918)	35.3	29.3	35.4	(0.3)
	501만원이상	(527)	34.4	28.7	37.0	(2.7)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35.0	28.0	37.0	(3.4)
	중 인식층	(1094)	35.1	28.9	36.0	(0.6)
	하 인식층	(779)	31.3	30.4	38.3	(4.5)

6.5. 직장 내 성별 직무 능력

『문 21』 그러면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변수명』 A215(원 문항), RA215(3점 recode), MA215(-, + 환산 점수)

▣ 직장 내 성별 직무 능력과 관련한 주장 중, 본인의 생각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나는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무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가 38.9%로 ‘나는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31.3%에 비해 약간 높음.

- 직업별로 학생(44.4%), 관리/전문/사무직(42.9%)은 ‘나는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무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가 높은 반면, 자영업(35.1%)은 ‘나는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가 약간 높게 나타남.

[표. 2-3-17] 본인 개인 가치관 - 직장 내 성별 직무 능력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15 (7점)	1	나는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무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A, -)	3.4
	2	2점	11.7
	3	3점	23.7
	4	보통이다	29.8
	5	5점	22.3
	6	6점	7.2
	7	나는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B, +)	1.8
RA215 (3점) recode)	8(1~3)	A 동의	38.9
	9(4)	보통	29.8
	10(5~7)	B 동의	31.3
MA215 (mean)	-	‘-’ ‘+’ 환산 점수(점)	- 5.1점

구 분		사례수	나는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무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1~3, -)	보통이다 (4)	나는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38.9	29.8	31.3	(- 5.1)
성	남성	(992)	30.8	31.9	37.4	(2.5)
	여성	(1008)	46.9	27.8	25.3	(- 12.6)
연령	18~29세	(375)	49.0	25.7	25.3	(- 14.6)
	30대	(347)	50.9	29.6	19.5	(- 15.7)
	40대	(406)	35.3	35.6	29.1	(- 4.0)
	50대	(394)	32.1	28.2	39.6	(1.7)
	60세 이상	(478)	30.8	29.6	39.6	(3.4)
지역	서울	(392)	39.7	32.1	28.2	(- 6.5)
	인천/경기	(597)	42.1	28.6	29.3	(- 6.2)
	대전/세종/충청	(210)	32.3	37.2	30.5	(- 0.8)
	광주/전라	(201)	47.2	28.4	24.4	(- 12.3)
	대구/경북	(201)	30.2	33.8	36.0	(0.8)
	부산/울산/경남	(313)	34.5	25.3	40.2	(- 0.9)
	강원/제주	(86)	46.0	20.1	33.9	(- 14.2)
학력	중졸이하	(258)	30.2	29.0	40.8	(5.3)
	고졸	(685)	33.2	29.9	37.0	(- 0.3)
	대재이상	(1057)	44.7	30.0	25.3	(- 10.8)
직업	농/임/어업	(71)	30.1	35.4	34.4	(- 1.8)
	자영업	(281)	31.8	33.1	35.1	(2.1)
	생산/서비스직	(460)	37.8	28.2	34.0	(- 3.6)
	관리/전문/사무직	(495)	42.9	28.8	28.3	(- 8.7)
	가정주부	(393)	41.1	31.8	27.1	(- 8.1)
	학생	(185)	44.4	28.1	27.5	(- 13.2)
	무직/기타	(114)	31.9	24.9	43.2	(7.5)
혼인	미혼	(449)	47.3	27.9	24.8	(- 13.0)
	기혼	(1413)	36.8	30.3	33.0	(- 3.2)
	이혼/사별	(137)	33.1	31.6	35.3	(0.9)
가구원 수	1인	(119)	39.8	27.0	33.2	(- 5.2)
	2인	(475)	36.7	30.9	32.4	(- 2.9)
	3인	(574)	40.7	28.5	30.8	(- 6.7)
	4인이하	(832)	38.7	30.5	30.8	(- 5.4)
종교	불교	(358)	24.6	36.8	38.6	(5.2)
	기독교	(321)	44.1	25.1	30.8	(- 7.9)
	천주교	(142)	43.1	21.6	35.3	(- 2.0)
	기타	(7)	45.8	12.3	41.9	(4.2)
	종교없음	(1172)	41.3	30.1	28.7	(- 8.0)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30.5	35.0	34.5	(- 1.4)
	301~500만원	(918)	42.4	27.2	30.4	(- 5.6)
	501만원이상	(527)	41.5	28.9	29.6	(- 8.1)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40.0	28.3	31.7	(- 2.7)
	중 인식층	(1094)	40.6	28.7	30.8	(- 6.7)
	하 인식층	(779)	36.3	31.7	32.0	(- 3.3)

6.6. 직장 동료 성별 선호

『 문 21 』 그러면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변수명 』 A216(원 문항), RA216(3점 recode), MA216(-, + 환산 점수)

▣ 직장 동료 성별 선호와 관련한 주장 중, 본인의 생각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함께 일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가 47.8%, ‘나는 가급적 남성과 함께 일하고 싶다’ 22.7%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음.

- 직업별로 ‘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함께 일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가 높은 가운데, 경제 활동층 중에서 관리/전문/사무직(53.9%) > 생산/서비스직(45.7%) > 자영업(39.5%)의 순으로 나타남.

[표. 2-3-18] 본인 개인 가치관 - 직장 동료 성별 선호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16 (7점)	1	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함께 일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A, -)	6.7
	2	2점	15.7
	3	3점	25.3
	4	보통이다	29.5
	5	5점	14.3
	6	6점	7.2
	7	나는 가급적 남성과 함께 일하고 싶다 (B, +)	1.2
RA216 (3점) recode)	8(1~3)	A 동의	47.8
	9(4)	보통	29.5
	10(5~7)	B 동의	22.7
MA216 (mean)	-	‘-’ ‘+’ 환산 점수(점)	- 14.8점

구 분		사례수	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함께 일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1~3, -)	보통이다 (4)	나는 가급적 남성과 함께 일하고 싶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47.8	29.5	22.7	(- 14.8)
성	남성	(992)	42.0	30.5	27.5	(- 9.1)
	여성	(1008)	53.4	28.6	18.0	(- 20.5)
연령	18~29세	(375)	52.0	29.4	18.5	(- 21.7)
	30대	(347)	56.5	25.9	17.5	(- 23.5)
	40대	(406)	49.4	30.2	20.3	(- 15.9)
	50대	(394)	44.8	26.8	28.4	(- 9.6)
	60세 이상	(478)	39.1	33.8	27.2	(- 6.6)
지역	서울	(392)	47.8	27.9	24.3	(- 14.3)
	인천/경기	(597)	48.6	29.3	22.1	(- 15.5)
	대전/세종/충청	(210)	42.3	36.9	20.8	(- 8.0)
	광주/전라	(201)	50.2	31.3	18.5	(- 16.3)
	대구/경북	(201)	44.3	32.2	23.5	(- 15.3)
	부산/울산/경남	(313)	48.4	25.2	26.5	(- 12.9)
	강원/제주	(86)	54.9	25.8	19.3	(- 31.9)
학력	중졸이하	(258)	35.2	38.4	26.4	(- 5.3)
	고졸	(685)	43.9	29.4	26.7	(- 9.9)
	대재이상	(1057)	53.3	27.4	19.3	(- 20.4)
직업	농/임/어업	(71)	33.7	44.8	21.5	(- 5.7)
	자영업	(281)	39.5	30.7	29.8	(- 6.2)
	생산/서비스직	(460)	45.7	30.5	23.9	(- 12.4)
	관리/전문/사무직	(495)	53.9	25.8	20.2	(- 19.9)
	가정주부	(393)	51.6	29.8	18.6	(- 18.5)
	학생	(185)	52.2	28.8	19.0	(- 22.8)
	무직/기타	(114)	38.2	29.3	32.5	(- 4.1)
혼인	미혼	(449)	51.6	28.8	19.6	(- 20.7)
	기혼	(1413)	47.4	28.7	24.0	(- 13.4)
	이혼/사별	(137)	39.2	40.3	20.5	(- 10.1)
가구원 수	1인	(119)	41.2	38.9	19.8	(- 12.2)
	2인	(475)	44.1	32.3	23.6	(- 11.8)
	3인	(574)	52.2	26.6	21.2	(- 17.5)
	4인이하	(832)	47.7	28.6	23.7	(- 15.1)
종교	불교	(358)	35.8	37.1	27.1	(- 6.7)
	기독교	(321)	50.2	28.4	21.4	(- 16.7)
	천주교	(142)	52.7	20.1	27.2	(- 15.4)
	기타	(7)	74.5	9.0	16.5	(- 24.1)
	종교없음	(1172)	50.0	28.7	21.2	(- 16.7)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42.6	34.0	23.4	(- 12.4)
	301~500만원	(918)	48.6	28.9	22.5	(- 13.9)
	501만원이상	(527)	51.7	25.9	22.4	(- 19.0)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53.2	27.3	19.5	(- 23.0)
	중 인식층	(1094)	48.8	29.9	21.4	(- 15.9)
	하 인식층	(779)	45.5	29.4	25.2	(- 12.0)

6.7.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직무 수행 영향

『문 21』 그러면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변수명』 A217(원 문항), RA217(3점 recode), MA217(-, + 환산 점수)

☐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직무 수행 영향과 관련한 주장 중, 본인의 생각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나는 1년 내외를 쉰 경우, 이전보다 업무 능력이 하락한다고 생각한다’가 38.7%로, ‘나는 1년 내외를 쉬어도 업무 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32.3%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자영업(42.3%), 생산/서비스직(39.9%)은 ‘이전보다 업무 능력이 하락한다고 생각한다’가 높은 반면, 관리/전문/사무직은 ‘이전보다 업무 능력이 하락한다고 생각한다’(37.5%)와 ‘업무 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35.1%)가 비슷한 수준임.

[표. 2-3-19] 본인 개인 가치관 -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직무 수행 영향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17 (7점)	1	나는 1년 내외를 쉬어도 업무 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A, -)	2.5
	2	2점	7.8
	3	3점	22.0
	4	보통이다	29.0
	5	5점	24.6
	6	6점	11.6
	7	나는 1년 내외를 쉰 경우, 이전보다 업무 능력이 하락한다고 생각한다 (B, +)	2.6
RA217 (3점) recode)	8(1~3)	A 동의	32.3
	9(4)	보통	29.0
	10(5~7)	B 동의	38.7
MA217 (mean)	-	‘-’ ‘+’ 환산 점수(점)	3.5점

구 분		사례수	나는 1년 내외를 쉬어도 업무 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1~3, -)	보통이다 (4)	나는 1년 내외를 쉬 경우, 이전보다 업무 능력이 하락한다고 생각한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32.3	29.0	38.7	(3.5)
성	남성	(992)	30.7	27.6	41.8	(5.8)
	여성	(1008)	33.9	30.3	35.8	(1.2)
연령	18~29세	(375)	39.4	27.9	32.7	(-3.6)
	30대	(347)	36.0	27.4	36.6	(-1.4)
	40대	(406)	34.3	29.7	36.0	(1.6)
	50대	(394)	27.1	32.4	40.5	(7.3)
	60세 이상	(478)	26.6	27.4	45.9	(10.9)
지역	서울	(392)	32.7	29.5	37.8	(1.9)
	인천/경기	(597)	29.4	29.1	41.5	(7.4)
	대전/세종/충청	(210)	36.0	33.5	30.4	(-1.9)
	광주/전라	(201)	39.4	29.8	30.8	(-1.2)
	대구/경북	(201)	24.5	22.2	53.3	(12.5)
	부산/울산/경남	(313)	28.0	32.7	39.3	(6.2)
	강원/제주	(86)	58.8	14.9	26.3	(-24.0)
학력	중졸이하	(258)	27.1	28.4	44.6	(9.9)
	고졸	(685)	27.5	32.0	40.5	(7.4)
	대재이상	(1057)	36.7	27.1	36.2	(-0.7)
직업	농/임/어업	(71)	30.8	22.4	46.8	(10.8)
	자영업	(281)	27.4	30.3	42.3	(7.9)
	생산/서비스직	(460)	30.3	29.8	39.9	(5.6)
	관리/전문/사무직	(495)	35.1	27.4	37.5	(1.4)
	가정주부	(393)	31.9	33.7	34.5	(1.8)
	학생	(185)	38.2	24.7	37.1	(-2.9)
	무직/기타	(114)	32.8	24.1	43.1	(4.4)
혼인	미혼	(449)	36.6	29.8	33.7	(-2.5)
	기혼	(1413)	31.0	28.6	40.4	(5.1)
	이혼/사별	(137)	31.4	30.1	38.4	(6.3)
가구원 수	1인	(119)	38.3	29.9	31.8	(-4.1)
	2인	(475)	32.7	29.5	37.8	(2.9)
	3인	(574)	30.6	29.4	40.0	(5.9)
	4인이하	(832)	32.4	28.2	39.4	(3.1)
종교	불교	(358)	26.3	26.7	47.0	(10.4)
	기독교	(321)	30.1	29.4	40.5	(4.8)
	천주교	(142)	31.5	31.4	37.1	(3.1)
	기타	(7)	57.1	5.2	37.8	(-6.3)
	종교없음	(1172)	34.7	29.4	35.9	(1.0)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28.4	29.1	42.4	(7.5)
	301~500만원	(918)	35.7	29.1	35.2	(0.1)
	501만원이상	(527)	30.4	28.6	41.1	(5.0)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23.8	35.5	40.6	(9.2)
	중 인식층	(1094)	35.8	28.7	35.4	(-0.9)
	하 인식층	(779)	28.7	28.2	43.1	(8.7)

6.8. 결혼 후 여성의 지위 평가 기준

『문 21』 그러면 다음 진술문을 읽고 귀하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변수명』 A218(원 문항), RA218(3점 recode), MA218(-, + 환산 점수)

☑ 결혼 후 여성의 지위 평가 기준과 관련한 주장 중, 본인의 생각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나는 결혼한 여성을 알게 될 때, 남편의 지위 및 능력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가 30.7%, ‘나는 결혼한 여성을 알게 될 때, 남편의 지위 및 능력을 우선적으로 본다’가 30.9%로 팽팽히 맞섬.

- 혼인 여부별로 미혼은 ‘나는 결혼한 여성을 알게 될 때, 남편의 지위 및 능력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34.5%)가 높은 반면, 기혼은 ‘나는 결혼한 여성을 알게 될 때, 남편의 지위 및 능력을 우선적으로 본다’(32.0%)가 높음.

[표. 2-3-20] 본인 개인 가치관 - 결혼 후 여성의 지위 평가 기준

변수명	값	응답 항목	비율(%)
A218 (7점)	1	나는 결혼한 여성을 알게 될 때, 남편의 지위 및 능력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A, -)	3.0
	2	2점	6.4
	3	3점	21.3
	4	보통이다	38.3
	5	5점	21.4
	6	6점	7.9
	7	나는 결혼한 여성을 알게 될 때, 남편의 지위 및 능력을 우선적으로 본다 (B, +)	1.6
RA218 (3점) recode)	8(1~3)	A 동의	30.7
	9(4)	보통	38.3
	10(5~7)	B 동의	30.9
MA218 (mean)	-	‘-’ ‘+’ 환산 점수(점)	- 0.4점

구 분		사례수	남편의 지위 및 능력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1~3, -)	보통이다 (4)	남편의 지위 및 능력을 우선적으로 본다 (5~7, +)	‘-’, ‘+’ 환산점수 (점)
전 체		(2000)	30.7	38.3	30.9	(- 0.4)
성	남성	(992)	30.4	38.9	30.7	(0.1)
	여성	(1008)	31.1	37.8	31.1	(- 0.9)
연령	18~29세	(375)	34.7	40.8	24.6	(- 5.6)
	30대	(347)	36.3	35.9	27.7	(- 3.7)
	40대	(406)	33.4	39.3	27.3	(- 3.9)
	50대	(394)	27.0	39.0	34.0	(2.7)
	60세 이상	(478)	24.5	36.8	38.7	(6.5)
지역	서울	(392)	28.2	43.9	27.9	(- 0.6)
	인천/경기	(597)	33.5	36.5	29.9	(- 2.5)
	대전/세종/충청	(210)	26.5	42.7	30.8	(1.7)
	광주/전라	(201)	34.0	45.3	20.7	(- 4.2)
	대구/경북	(201)	25.6	41.2	33.2	(- 0.9)
	부산/울산/경남	(313)	30.9	28.5	40.6	(6.0)
	강원/제주	(86)	36.8	27.3	35.9	(- 2.8)
학력	중졸이하	(258)	23.6	37.6	38.8	(9.4)
	고졸	(685)	29.3	37.3	33.4	(0.5)
	대재이상	(1057)	33.4	39.2	27.4	(- 3.4)
직업	농/임/어업	(71)	24.9	41.9	33.1	(4.6)
	자영업	(281)	33.8	35.9	30.3	(- 3.2)
	생산/서비스직	(460)	25.4	41.8	32.8	(4.0)
	관리/전문/사무직	(495)	34.8	34.1	31.2	(- 2.5)
	가정주부	(393)	30.6	38.4	30.9	(- 0.5)
	학생	(185)	36.2	41.2	22.6	(- 7.3)
	무직/기타	(114)	22.4	41.6	36.0	(6.0)
혼인	미혼	(449)	34.5	40.2	25.3	(- 5.1)
	기혼	(1413)	29.6	38.3	32.0	(0.5)
	이혼/사별	(137)	30.0	32.3	37.6	(5.9)
가구원 수	1인	(119)	24.8	42.9	32.3	(1.5)
	2인	(475)	29.7	36.9	33.3	(1.9)
	3인	(574)	30.0	36.3	33.7	(1.2)
	4인이하	(832)	32.7	39.9	27.4	(- 3.1)
종교	불교	(358)	20.1	38.8	41.1	(8.3)
	기독교	(321)	33.0	38.4	28.6	(- 3.1)
	천주교	(142)	35.1	25.0	39.9	(- 1.5)
	기타	(7)	43.6	35.2	21.2	(- 5.9)
	종교없음	(1172)	32.8	39.8	27.4	(- 2.2)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554)	22.8	43.3	33.8	(4.4)
	301~500만원	(918)	33.1	36.0	30.9	(- 0.9)
	501만원이상	(527)	34.9	37.2	27.9	(- 4.6)
생활 수준	상 인식층	(127)	32.4	37.2	30.4	(0.7)
	중 인식층	(1094)	32.0	38.8	29.2	(- 2.5)
	하 인식층	(779)	28.7	37.9	33.4	(2.3)